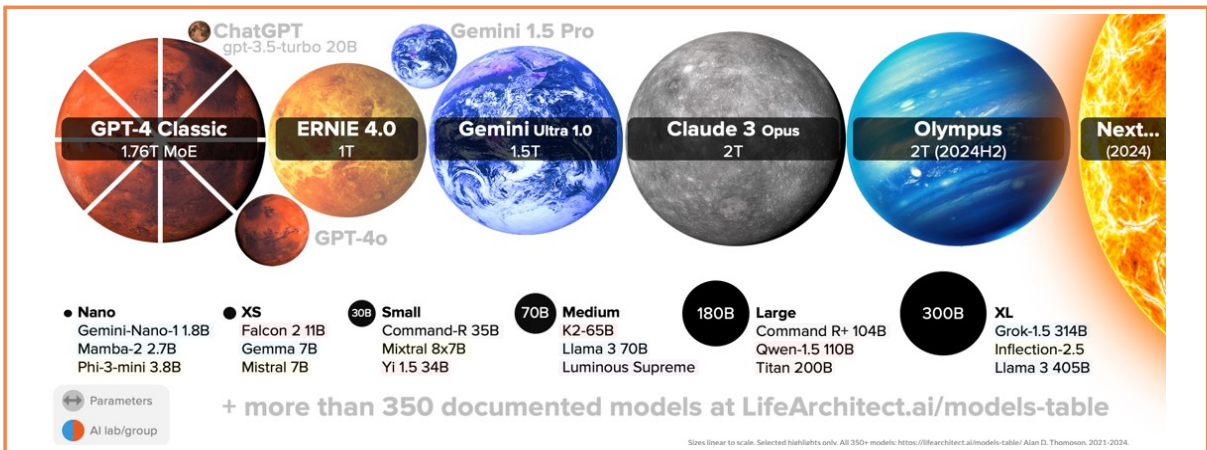




주요 동향(2) : ICT

1 '생성형 AI' 기술 패권을 향한 글로벌 기업 각축전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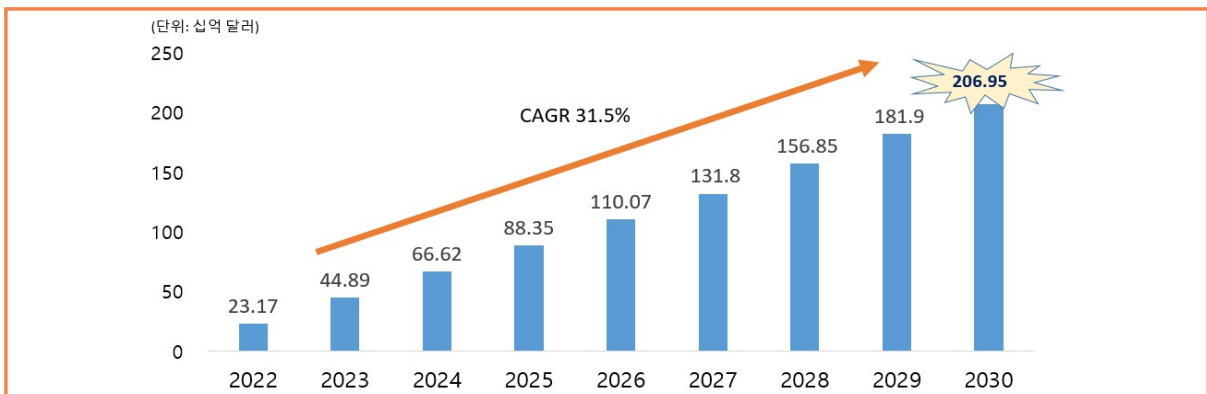
- ⇒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(LLM)을 기점으로 AI 발전과 확산이 더욱 가속화
 - AI 대중화를 이끈 오픈AI가 챗GPT GPT-4o 등 후속 모델공개, 구글·애플·메타 등 도전적 모델을 만들어 경쟁에 가세하면서 주도권 다툼 격화
 - 텍스트 이해, 자연스러운 대화, 이미지·영상·음성 분석과 생성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하며, 글로벌 기업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서비스 개발·출시 활기
- 〈 대규모 언어모델 출시 동향('24.6) 〉



출처 : LifeArchitect.ai/models, 2024.6.

- 생성형 AI는 2022년 약 231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,000억 달러(약 285조 원)를 돌파하며 연평균성장률(CAGR) 31.5% 기록 전망(Statista, '24.2.)
 - 텍스트·이미지·영상·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, 의사결정 지원, 자동화 작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시장 성장을 견인

〈 생성형 AI 시장 전망 (Statista, '24.2.) 〉



➔ 구글,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의 생성형 AI 서비스 경쟁 현황

- 빅테크 기업은 모두 생성형 AI를 겨냥한 전략을 기반으로 신기술·제품·서비스를 선보이면서 AI 시장의 주도권 강화에 전방위적 역량을 결집
 - 2024년 상반기 마이크로소프트·구글·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연례개발자회의가 일단락되면서 이들의 차기 AI 전략과 비전이 수면 위로 표출

〈 글로벌 기업의 생성형 AI 서비스 경쟁 현황 〉

<p>OpenAI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챗GPT 계기로 AI 대중화 포문 음성·텍스트·시각물 이해·처리 가능한 GPT-4o 등 후속 모델 출시 2 영리 법인 전환 검토→차기 투자 유치와 기술개발에 영향 	<p>Microsoft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오픈AI와 협력해 초기 시장 선점 2 온디바이스 AI 시장 겨냥한 '코파일럿+(플러스)' 3 '오픈AI 플러스' 전략 본격화 →파트너사 확대 	<p>Apple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첫 AI 시스템 'Apple Intelligence' 2 오픈AI와 협력해 챗GPT 도입 3 시리,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→ AI 에이전트 역할
<p>Google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25년 검색 역사를 AI로 탈바꿈 → '제미나이 생태계' 구현 2 제미나이 후속 모델(1.5프로 및 플래시), 프로젝트 아스트라 등이 핵심 경쟁력 	<p>amazon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기업용 고객 겨냥한 AI 챗봇 '아마존 큐' 정식 출시, 연내 LLM 올림푸스 출시 예정 2 앤트로픽에 총 40억 달러 투자 추진 	<p>Meta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오픈 소스 전략으로 차별화 2 라마3를 SNS용 챗봇 메타AI에 적용→생성형 AI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현

출처 : IITP 정리

- **(오픈AI)** 신규 모델 'GPT-4o'를 공개, 생성형 AI 분야 시장 선도
 - 지난 5월 공개한 최신 버전 GPT-4o(Omni model)는 음성·텍스트·시각물을 입력하면 AI가 추론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응답
 - 복잡한 기술 향상보다는 AI가 실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현하는데 집중하며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등 시연에서는 지금까지 AI 음성 챗봇에는 없었던 사실적인 대화 가능
 - 현재 출시된 타사의 음성 비서와 달리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소리 톤을 높이고 대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점이 특징
- **(마이크로소프트)** 코파일럿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 주도
 -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합하고 챗GPT를 접목해 기업 고객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성장동력 DNA에 AI가 자리 잡음
 - '빌드 2024'에서는 PC 운영체제(OS)인 '윈도'와 사무 도구 'MS 365' 등을 중심으로 각 기업의 사무 환경과 엔지니어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에 중점
 - ※ 생성형 AI를 내장한 PC 신제품 '코파일럿+(플러스) PC'와 AI 칩 코발트 100이 핵심
 - 오픈AI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생성형 AI 패러다임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했으나 최근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 등 '오픈AI 플러스' 전략 본격화



- **(애플)** AI 시스템 Apple Intelligence, 생성형 AI 주도권 찾을 돌파구 기대
 - 생성형 AI 기반 개인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‘애플 인텔리전스(Apple Intelligence)’ 공개
 -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챗GPT를 시리에 도입하는 등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하기보다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능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이를 애플 주요 기기와 서비스에 적용
 - ※ 아이폰15 프로·프로맥스와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16 시리즈, 맥OS 세쿼이아, iPadOS 18을 탑재한 맥과 아이패드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
- **(구글)** ‘알파고’를 개발한 딥마인드 등 AI 선도자답게 MS 추격 박차
 - 구글을 존재하게 한 검색엔진을 시작으로 구글 포토·워크스페이스·스마트기기 등 사업 부문 전반에 자체 AI 모델인 제미니를 접목시키며 거대한 ‘제미니 생태계’를 구축한다는 목표
 - 멀티모달 AI 비서 ‘프로젝트 아스트라(Project Astra)’ 소개
 - ※ 제미니 최신 버전으로 구동하는 멀티모달 AI로 텍스트·이미지·오디오·비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명령을 수행하며 AI 어시스턴트
 - 구글은 AI 원칙에 따라 AI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책임감 있는 AI 구현 방침도 강조
- **(아마존)** 기업용 고객 겨냥한 AI 챗봇 ‘아마존 큐’ 정식 출시
 - 아마존웹서비스가 지난해 하반기 연례 테크 컨퍼런스 ‘리인벤트 2023’에서 공개했던 기업용 AI 챗봇 ‘아마존 큐(Amazon Q)’를 정식 출시(5.30.)
 - ※ 기업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고 문서 작성을 돕는 것은 물론,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자연어 대화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AI 어시스턴트
 - 챗GPT와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챗봇 클로드(Claude)를 만든 AI 스타트업 앤트로픽(Anthropic)에 27억 5,000만 달러(약 3조 7,000억 원)를 추가 투자
 - 올 2분기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인 대형 언어모델 ‘올림푸스’를 조만간 공개 예정이나 당초 목표한 매개변수 2조 개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관측
- **(메타)** 메타버스 플랫폼을 위한 ‘AI’, 오픈소스 전략으로 차별화
 - 거대언어모델 개발 결과물을 무료 배포하며 AI 사용 확산과 상대적으로 경쟁업체의 제품 가격을 낮추면서 AI 관련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 취지
 - ※ ‘라마3’는 당분간 기업에게 무료 제공 및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이를 이용하는 기업에 비용 청구 없음

출처 : 전자신문 외(2024.6.)

<https://m.etnews.com/20240617000187>

<https://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4052201071627176002>

<https://www.statista.com/forecasts/1449838/generative-ai-market-size-worldwide>

<https://www.samsungsds.com/kr/insights/sds-genai-240124.html>

<https://www.digital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21383>